

# 광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 '급증'

### 10여개 협력병원 입원환자 분석 결과 검출율 ↑

### 1주 만에 4배 늘어...음식물 충분히 익혀먹어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실사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5개 병원을 포함한 10여개 광주지역 협력병원에 입·내원한 실사환자로부터 원인병원체를 분석

한 결과, 12월 2째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했다.

11월 1.8%(113건 중 2건), 12월 1째주에는 5.7%(35건 중 2건)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2째주에는 21.2%(33건 중 7건)으로 전주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

최근 5년(2015년~2018년) 지역 노로바이러스 검출률도 본격적인 추위가 지속되는 12월에는 평균

42%(22.2%~51.1%)로 확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실온에서는 10일, 10도 해수 등에서는 최대 30~40일까지 생존하며 영하 20도 이하의 조건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식중독원인균이다.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손에 묻으면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야 제거할 수 있다.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사멸되기 때문에 물은 끓여먹고 굴 등 어패류와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먹

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1~3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대변이나 구토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는 특성상 2차 감염으로 인한 대형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재감염될 수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음료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수"라며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 조리시작 전후에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갓길 트럭 추돌 화재

11일 오전 10시16분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하행선 무주 안성 IC 인근에서 A씨(39)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B씨(35)의 4.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4.5톤 트럭에 불이 났으며 25톤 트레일러에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특히 트레일러에 타이어가 적재돼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진압을 위해 2시간 동안 모든 차선을 통제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가 정차 중인 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37년간 절도-옥살이 반복 50대, 또 남의 물건 손대

37년간 절도행각을 반복하며 옥살이를 거듭한 50대가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0시40분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24만5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다.

한달 뒤인 11월 4일엔 병원 간호사실과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가 같은해 12월2일까지 석달간 저지른 절도만 1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절도 인생은 37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징역형만 11번이다. 이 가운데 9번은 실형이다.

2015년 12월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18일 출소한 뒤 얼마 안돼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톤 포터, 교차로서 전동휠체어 충격...70대 사망

10일 오후 9시2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포터가 전동휠체어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A씨(79·여)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포터차량 운전자 B씨(36)가 교차로를 지나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타고가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삼척서 도로변 건던 6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10일 오후 5시 41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하매방리 왕복 2차선에서 A씨(58)가 몰던 무쏘차량이 도로변을 건던 B씨(65)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크게 입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곳으로 A씨는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및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쿨존 과속 차량 단속 실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 조국 내년 1학기 서울대 로스쿨 강의개설 신청



장관직 사퇴 하루만인 지난 10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 2020년 1학기 법학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월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로스쿨 행정실에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의 강의 개설 연락을 확인하지 않다가 행정실 측이 재차 보낸 확인 메일을 수신한 뒤 강의 개설 의사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일 오후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 하루 뒤 바로 승인 처리돼 교수로 복직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대상은 로스쿨 재학생이고,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관계자는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통상적인 강의 개설은 교수간 시간표 조정 등을 위한 협의가 각 단과대학별로 있을 수 있으나 개설 신청단계에서는 심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주민혈세로 '거짓 출장' 광주 북구의원 출석정지 징계

광주 북구의회가 주민 혈세로 '거짓 출장'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등을 결정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위원 5명 만장일치로 고점례 의장에게 10일, 김건안 운영위원장에게는 5일의 출석정지를 확정했다.

동행한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 대상 아님'으로 정했다. 다만, 위원 중 1명의 의원은 2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특

위는 20일 본회의에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4명의 구의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청사 신축 전 경남 통영시의회 건

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아 통영을 방문했으나,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관광지만 다녀와 위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월6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위원장은 당직자격정지 3개월, 동행한 의원 2명에게는 각각 서면 경고를 결정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